주일예배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5월 16일 (제109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검사와 변호사

"나에게는 검사가 되고, 타인에게는 변호사가 돼라."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는 검사처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냉정하게 추궁하고 죄를 물어 대가를 치르게 하나,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며 잘못을 감싸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대하다. 잘못을 해도 쉽게 용서하고, 합당한 이유로 용납한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이 생겨났을까.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에게 나는 깐깐한 검사처럼 대한다. 저녁이 되면 일기에 내 잘못을 쓰고 반성하는가 하면, 거울을 보고 "이초석아, 너 왜 그랬어?" 하며 질책할 뿐 아니라 내 뺨을 때리며 호되게 나무라기도 한다.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우(愚)를 범치 않도록 한다.

나에게는 엄격해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지면 내 안에 슬슬 균이 생기게 된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 이러면 게으름이란 균이 생겨나고, '아무도 안 봤으니까 괜찮아.' 하면 거짓이란 균이 생겨나고, '뭐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 하면 대충이란 균이 생겨난다. 그것을 방치하면 그 균이 결국 내 인생을 갉아먹어 실패자, 낙오자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모진 검사가 돼라. 그것이 너를 성공의 길로, 바른길로 인도할 것이다.

대신 남에게는 너그럽고, 관용을 베푸는 자가 돼라.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오 리를 가자고 하면 십 리라도 가주고, '다 까닭이 있겠지, 그럴 상황이 있었겠지.', '누구든 온전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눅6:41~42).

나에게 나는 깐깐한 검사인가, 너그러운 변호사인가?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다

가정의 달 5월,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편127편 3절 이하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경영을 이루려면 의논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15:22). 따라서 자녀교육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부간에 의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의논하여 자녀교육을 올바로 해야 늙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 떠날 때까지 효도를 받습니다. 부부간의 의논이 없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교육에 실패한 대표적 가정입니다. 부부는 낙원에서 내쫓기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비극적 결말을 맞았습니다. 늘 말하지만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검입니다. 국가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나 교회 경영이나 가정 경영이나 육체 경영이나 똑같습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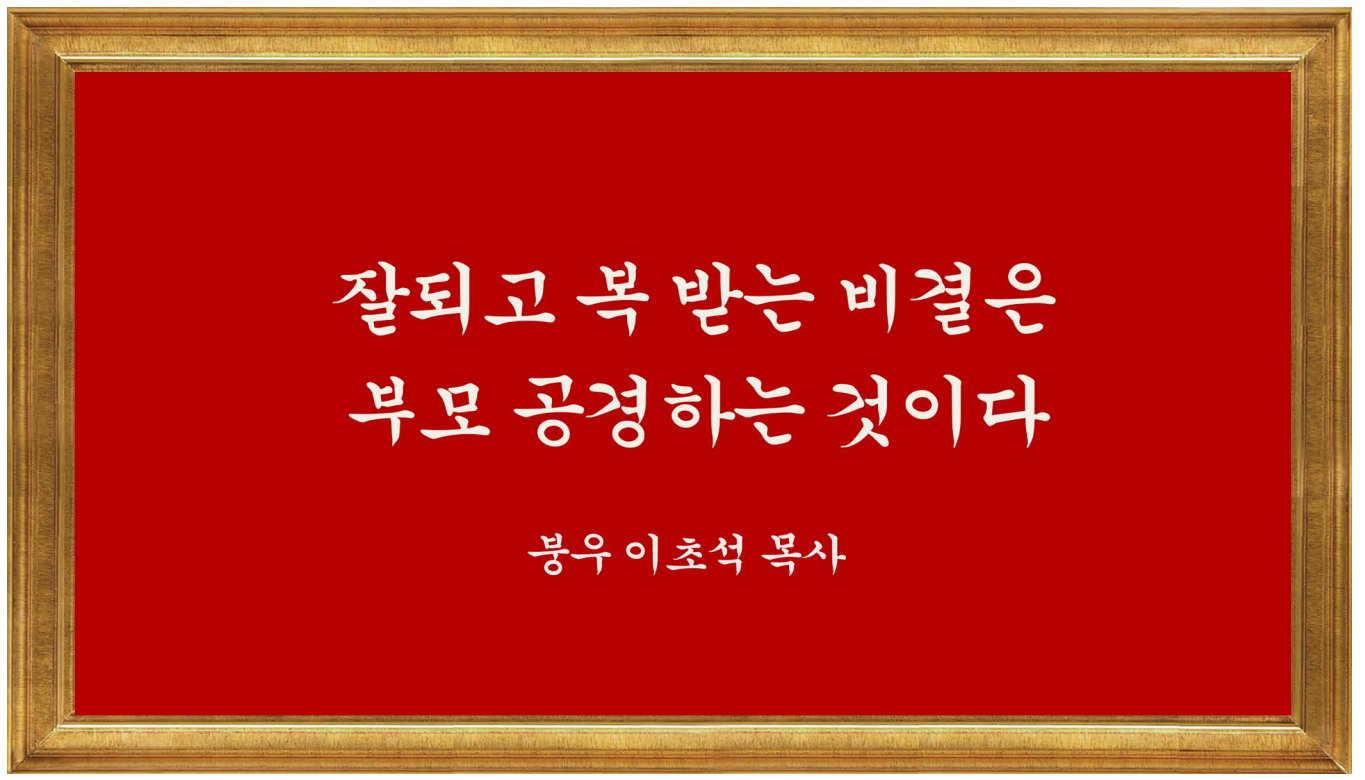
기업이 망하면 사주가 옥에 들어갑니다. 부모의 기업인 자녀가 잘못되면 엄마, 아버지가 눈물항아리 신세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이렇게 교육하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시1:1~3).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면 여러분 자녀의 앞날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잠22:1~3). 돈을 좇지 말고 명예를 지키며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괜히 머리가 되려고 우쭐하며 뛰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천국입니다. 자녀가 잘 돼야 평안히 단잠을 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부가 의논하여 아무리 바빠도 함께 기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최고의 VIP인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의 가정은 자녀양육을 참 잘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어머니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잠언을 쓰고 읽게 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모릅니다. 결혼하여 자녀까지 둔 나이임에도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결과입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이 그 대표자 아닙니까?

자녀교육은 여러분이 책임져야할 의무입니다. 교육부재 현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노년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노년에 편안히 대우받고 살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좋아, 좋아' 하며 제멋대로 자라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 어린아이 교육은 백지에 그 부모가 쓰는 대로, 그린 대로 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신뢰를 구축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한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상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업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인재로 양육하여 신명기 28장의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예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엡6:1~3)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알라

저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과 비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번쩍, 귀가 번쩍 뜨이지요?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

거짓말을 못하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도 인륜의 첫 계명으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5:16)고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는지 볼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제물이 되기로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26:12~13).

그리고 이방여인으로 유다지파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룻은 남편이 죽자 나오미를 따라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었고, 다윗의 선조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룻2:11~12).

효도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오래 살고,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축복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여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요19:27).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전권을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8~11).

저는 이번 어버이날에 생각이 깊었습니다. '이제 찾아뵐 어머니가 안 계시구나.' 생각하니 가슴 한 편이 시렸습니다. '나무가 가만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나 세월이 부모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논어의 한 구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옵니다.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날이 진짜 옵니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지금 효도하세요.

불효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 있는데, 바로 핑계입니다. 그들 말인즉 효도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요. 특히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 중에는 교회 일 때문에 바빠서 부모를 찾아뵙지 못한다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합당하고 충실한 자들 같으나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런 자는 마치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고르반'으로 핑계를 대는 유대인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부모공양의 책임을 면제받았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서약한 것인데, 서약만 하면 그 재산을 언제 바치든지 관계없이 부모 공양을 면제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노골적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전을 미끼로 부모공양에 소홀한 랍비들을 나무라시며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칭하시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통탄해하셨습니다(막7:9~14).

요즘 '신종 고르반'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한다고, 회사가 바쁘다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다 핑계지요.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를 향해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할 수 있느냐고 질타하십니다(요일4:20).

여러분, 나무가 어릴 적에는 산이 나무를 위해 존재합니다. 산이 나무에게 비옥한 토양과 자양분을 제공해줘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나무가 장성하여 창대해지면 나무가 산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잎이 무성하여져서 산사태도 막아주고, 울창한 숲도 만들어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게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나무였다면, 이제는 부모의 버팀목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고, 힘이 되어 드리는 큰 나무여야 합니다. 잘 드시는지, 잘 입고 계신지, 사시는 곳에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늙으면 입맛이 없으니 더 맛있는 것으로 대접해드리고, 늙으면 추위도 많이 타시니 따듯한 옷을 입혀드리고, 때때로 보약도 드시게 해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께 돈 좀 쓰세요. 시간 좀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를 집이나 지키는 개로 취급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지네들은 휴가 가면서 부모는 집이나 지키라고 합니다. 개는 안 입어도 되는 옷을 이것저것 사서 입히면서 부모에게는 얄짤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때리고 내다 버리는 놈들도 있고, 부모가 노년에 쓰려고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요. 그런 놈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신27:16),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30:17).

효도(孝道)는 백행(百行)의 기본이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린 손자를 베고 자다가 그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손자를 죽였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자책하며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생각하여 몰래 죽은 아이를 안고 나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는 죽은 아들의 엉덩이를 호되게 때리며 "이 자식아, 너는 왜 죽어서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살아났답니다. 이 일이 동네에 퍼지고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 그 동네 이름이 '효자동(孝子洞)'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효도까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기뻐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 입에는 더 좋은 것으로 넣어주시려 하신 부모님, 다 큰 자식들인데도 늘 걱정을 달고 사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닐까요? 내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날 낳은 내 부모니까 잘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포지효(反哺之孝)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는 자식이 자라서 어버이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르는 말로,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다 자라면 그때부터는 먹이 사냥이 힘에 부치는 어미를 위해서 자식이 힘을 다하여 어미를 먹여 살린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미물도 이렇게 어미를 섬기건만 사람이 미물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효도합시다.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세상풍조를 따르지 말자

로마제국의 멸망 원인은 도덕적 타락에 있다고 한다. 바울 서신에도 기록되어있는 것처럼 불륜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도 공공연한 일상이었다. 오랜 풍요가 낳은 결과다. 힘든 일은 노예들이 다 담당하고 로마시민들은 검투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을 구경거리로 소일했다. 쾌락을 좇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명약관화한 일 아닌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의 귀족들은 혼례 문제만큼은 다른 접근을 한 모양이다. 자신들은 온갖 쾌락에 탐닉하면서도 며느릿감이나 아내감만큼은 순결하길 원했단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직 크리스천 가정의 규수들만은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모양이다. 로마정부가 핍박하는 크리스천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혼례를 치렀다고 한다. 로마 상층부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로마 크리스천들이 핍박 속에서도 세상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켰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로마에서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범법자였으며,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교집단이었다고 한다.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그런 인식을 퍼트렸다고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상종 못할 병균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죽음도 불사하는 크리스천의 신앙, 도덕적 순수성,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귀족들의 눈에는 달리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늘 세상은 새롭게 변화한다. 트랜드를 이야기하며 낡고 고루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로인해 세상의 미워함을 받고 조롱거리가 될지언정,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온 믿음의 선친들이 있었기에 여전히 교회는 힘을 잃지 않고 세계를 복음화 하고 있다고 믿는다.

한때 교회성장을 위해 친문화적인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사실 반짝 성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목소리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목사님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셨고, '비록 더딜지언정 뒤로 물러가지는 않는다'는 자세로 우리 예수중심 교단을 지켜오셨다고 믿는다.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대를 이어 지켜가야 할 모습이다. 제발 '남들이 그러하니 우리도'라는 생각은 버리자. 세상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 믿음을 지키자.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굳건한 믿음의 초석이다.

Henry Han
henry8829@naver.com

:: 아름다운 인생 ::

절박한 심정

얼마 전, 세계 각종 영화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배우가 있다. 바로 윤여정 배우다. 그녀는 결혼생활로 배우활동을 접었다가 이혼 후 두 아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다시 배우활동을 시작했고, 이혼녀라는 편견 속에서도 배역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금은 연기를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다. 그녀는 "두 아들이 나를 명배우로 만들었다."고 오스카 시상식에서 말했다. 아들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는 스스로 '생계형 배우'였다고 말한다.

목사님은 '헝그리정신'에 대해 자주 말씀하신다. 이 말은 주로 권투선수들에게 쓰이던 말로, 가진 게 건장한 몸 하나밖에 없던 젊은이들이 밑천이 들지 않는 권투로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다고 한다. 목사님은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신다.

필자는 그 세대를 겪지는 않았지만,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볼 때면 그런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다. 몸은 좋은데, 정신은 나약하기만 하다. 그들에게서 절박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가?

누구든 절박하면 젖 먹은 힘까지 다하게 되고, 절박하면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는 것 같은 담력이 생긴다. 절박하면 길이 보이고, 절박하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휘된다. 그리고 절박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선이 아닌 최선을 다할 때 내 인생이 명작이 되고, 스타가 된다는 것을 알자. 윤여정 배우처럼.

이은성
es2563@naver.com

:: 신앙논객 ::

야, 너두 할 수 있어!

"야, 너두 할 수 있어!" 영어회화 업계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 회사의 광고 카피인 이 문장은 기존 1위 업체를 제치고 업계 1위로 올라서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이 회사는 기업의 목표를 단순히 회원 수나 콘텐츠를 늘리는 것이 아닌 '학습자(수강생)의 성공'으로 잡았다. 이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었고, 심지어 후발 광고에는 배우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여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대학부에는 2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주의 일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고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와 부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 개근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예배는 매주 참석하지만 말 그대로 출석체크 하듯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도 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지만, 모두가 하루라도 속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건 목회자라면 당연히 품게 되는 마음일 것이다.

그중 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나도 성령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 광고 카피를 떠올리게 하셨다. "야, 너두 변화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죽이며 핍박하던 죄인 중의 괴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었고, 방배동 일대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한 부자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석 목사가 되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성공은 매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붙어있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야, 너두 할 수 있어!"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오늘의 메시지 ::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셨다. 인간의 삶을 사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기저귀를 안 갈았을까. 배고파 우는 모습, 목수의 아들로 못질을 못하거나 대패질을 서투르게 하는 모습을 보았을 터이다. 그 아는 자가 메시아? 코웃음을 쳤겠지.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불행하다.

방배동 출신 중에 목사님 성도가 있을까? 제자는 더욱 언감생심이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알게 된 방배동에서부터 지금까지 50년 세월을 아주 조금씩 늦되게 목사님을 알아가는 중이다. 예수님의 엄청난 역사를 보면서도 감동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해하게 된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문산교회 이전하는 곳에 리모델링공사에 가서 일하라고 명하셨다. 아침에 카톡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중으로 가라 하신다.

문산교회 인테리어 공사하는 곳에는 박인덕 목사님을 비롯하여 참 여러 지교회 목사님들이 노가다 현장을 뛰신다. 강화, 동두천, 용인 등 10군데 이상 목사님들이 현장봉사를 하신다. 강도 높은 노동 후에도 저녁 기도는 두 시간 이상씩 강행한다. 참 대단하다는 말이 부족하다.

대구교회 청년부에서 16년간 장순천 목사님을 의지하고 순종한 청년이 나를 바래다주었다. 편도 40km 거리니 늦은 밤 걱정이 됐다. 그 청년 하는 말이 '이 정도는 일도 아닙니다.' 한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 그 16년 동안 담임목사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결과를 간증하였다.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확실한 믿음, 체험이었다. 장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는시늉까지 한 친구의 간증은 놀라웠다. "장 목사님은 저희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초석 목사님을 앞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이 청년의 결론이 이렇다. "장 목사님이 저희를 키우셨지만, 이초석 목사님을 떠나면 그 순간 저는 장 목사님을 떠납니다. 우린 이초석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하. 멋진 담임목사 밑에 성도구나. 대단한 문산교회, 성도! 모두가 총회장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귀한 믿음이다. 나는 부끄럽고 배우며 오직 한 마디 감탄, '대단합니다!' 외치는데, 사실은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광주 목사

:: 성도간증 ::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하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각국에 공항들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사는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K-방역이다'라며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곳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방역에 있어 한국처럼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몇 번씩이나 긴급사태가 선포되기도 했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매주 주일예배를 드리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총회장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목사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해주셨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시91:6~7). 이 말씀으로 기도해주셔서 목사님의 기도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믿고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동경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지켜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으며,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구촌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하며 갈 것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거리두기 잘하면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간다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한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동경예수중심교회 김장길 목사

:: 울림 있는 삶 ::

갈등 해소법

30여 개가 넘는 점포가 있는 상가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나는 텃세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음식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모든 문을 닫고 장사를 해야 했고, 시야를 답답하게 한다며 유리 썬팅 시공을 못하게 해서 실내를 모두 노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인사를 받지 않는 몇몇 터줏대감들이 주는 심한 모멸감이었다. 더욱이 바로 옆집인 미용실에서는 늘 삼삼오오 모여 우리 가게를 슬쩍슬쩍 훔쳐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억지에 가까운 텃세에도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꿋꿋했고, 인사도 밝게 하면서 나름 갈등을 해소하려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계속되는 간섭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주는 모멸감보다 내 안에 싹트는 미움을 제어하지 못해 자괴감에 빠졌다. 그래서 울컥 슬픔이 복받쳐 올라오면 기도 반, 하소연 반 주님을 목청껏 불렀다.

그럴 무렵, 너무나 손쉽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옆집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후 그들이 배달통을 들어다 주기도 하며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감격한 나는 온 가족을 대동하고 미용실 단골이 되어 주었고, 이 깨달음으로 주변 상가를 상대로 구매를 하며 화평을 일구는데 만전을 기했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작지만 잦은 상거래를 해보자. 얼마 전에 이 시대 목사님이 '화목하려면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맞다. 그들의 필요 욕구를 챙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니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힘든 관계나 갈등과 단절의 관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화목제물을 그들에게 줘라.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기쁨을 맛보리라.

추성숙 집사

:: 옹달샘 ::

썸타는 교인

'썸'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내꺼 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라는 가사로 유명합니다. 썸은 연인도, 친구도 아닌 관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즐기듯이 연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썸타는 교인들이 있다. 여기저기 교회 간만 보고 돌아다니는 교인,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비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습니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5~16).

분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확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미지근한 음식은 잘 쉬고, 그 안에 균이 가득하여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이니까요.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사랑이 아닌 공경의 대상 '부모'

우리는 고령화시대를 살고 있다. 머지않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부양할 사람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부모를 버린 자식'이라는 현대판 고려장의 뉴스 기사를 접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보건사회연구원, 2019), '부모를 모실 책임은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 응답이 40.9%로 나타났다. 한편,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5.7%였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부모부양에 대한 마음과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십계명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중 하나님에 대한 핵심 되는 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핵심 되는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5계명에 대해서는 평범하게, 그리고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굳이 십계명이 아니어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어디서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제시한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제5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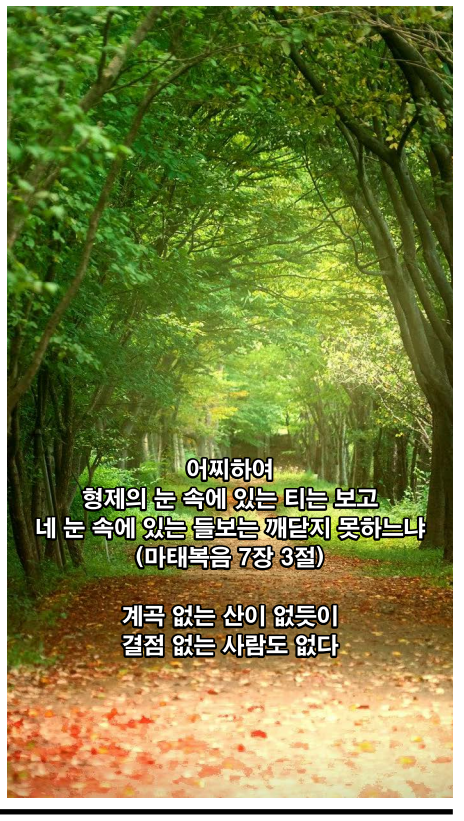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왜 십계명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 있을까?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다. 그냥 사랑 하나면 된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있어 조건을 내걸지 않고 사랑한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연장선에 있으면서 인간에 대한 계명의 출발점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 싶다.

「공경」에 대한 의미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공손히 섬김(신5:16),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춤(막7:10),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데, 두려움을 수반한 공포심으로가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뜻한다(레26:2). 즉 상대방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하셨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한다. 그런데 어디에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다. 이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공경과 경외(레19:3)의 대상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될 수 없고, 장수하지 못한다(출28:12). 그만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에 하나님과 부모를 동등한 위치에 두시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반대로 부모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듯 하나님의 가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윤리적 문제를 떠나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반역이 아닐까 싶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그리고 성경엔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떠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다. 부모는 생명의 근원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실재하는 육신의 몸으로 생명을 전달해주신 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장수의 축복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한 사람도 자녀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부모가 없기를 바라며, 한 사람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